

제주항공, 샷포로 뜬다



국제선 3개 노선에 신규 취항
9월19일까지 제주-김포 증편

애경그룹 계열의 LOCC(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이 항공기 추가 도입 국제선 3개 도시 신규 취항, 도쿄와 중국 시장 증편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일 인천-일본 삿포로, 인천-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천-태국 푸켓 등 국제선 3개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또한 부산-사이판 노선은 주2회 일정으로 7월26일부터 8월23일까지, 부산-하노이 노선은 주 2~4회 일정으로 7월23일부터 8월27일까지 각각 부정기편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10월까지의 중국 16개 도시, 21개 노선의 부정기편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9월7일부터는 현재 1일 3회 왕복 운항하는 인천-도쿄 나리타 노선의 운항횟수를 1일 4회로 증편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객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제주-김포(일부 인천) 노선은 9월부터 9월 19일까지 약 300여 편을 늘린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러한 운항편 확대를 위해 하반기 중에 항공기 3대를 도입해 연내에 26대까지 늘린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박동훈 전 사장 “배기가스 조작 몰랐다”

(폭스바겐코리아)

참고인 소환... 조작 혐의 전면 부인
폭스바겐 외국인 임원 곧 소환 방침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폭스바겐코리아 박동훈(64) 전 사장을 소환했다.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 검사)는 5일 오전 박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량 시험성적 조작에 개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이 조작됐는지 몰랐느냐”는 질문에 “독일에서 제조된 차량을 받았을 뿐”이라고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기가스와 연비, 소음인증 통과를 위해 139건의 시험성

적서를 조작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461대의 차량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상대로 폭스바겐이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 189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의 배기가스 조작을 알고도 수입 판매했는지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조직적으로 연비를 속였는지 등을 조사했다.

박 전 사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폭스바겐코리아 인종담당 윤보씨를 지난달 24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게 조사를 위해 소환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요한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비롯한 외국인 임원 등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5일 오전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사장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뉴스사

S.M.C&C BT&I → SM타운트래블 변경

기업여행 전문 S.M.C&C BT&I가 S.M.타운트래블(SMTOWN TRAVEL)로 브랜드를 변경했다. 1987년 7월 기업 출장 및 MICE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로 출발한 BT&I는 2012년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합병을 거쳐 SM C&C BT&I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와 콜라보를 통한 K-POP 여행상품을 론칭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여행사업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이어



7월 창립 29주년을 맞아 브랜드를 새롭게 바꿨다. SM타운트래블 정의권 대표는 “기업 출장과 MICE사업 부분은 유지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연계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브랜드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재범 전문기자

신한카드, 2년 연속 ‘소비자평가 1위’

금융소비자연맹 12개 항목 평가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 선정한 ‘2016년 소비자평가 좋은 카드사 순위’가 발표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유익한 소비자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8개 전업카드사의 개별 공시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안정성(40%), 건전성(20%), 수익성(10%), 소비자성(30%) 등 4대 부문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순위를 결정했다.

전체 순위는 신한은행~비씨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외환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순서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년 연속 1위다. 비씨카드는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신한카드는 건전성을 제외한 전 부문 상위권을 차지하며 종합 1위에 랭크됐다. 비씨카드는 소비자성에서 7위였지만 건전성 부문 1위 덕분에 종합 2위가 됐다. 삼성카드는 수익성 부문이 전년 1위에서 4위로 하락해 순위가 밀렸다. KB국민카드는 소비자성 부문이 지난해 6위에서 2위로 올랐고 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카드는 소비자성 부문이 전년 8위에서 5위로 상승했지만 안정성, 건전성 부문의 순위가 하락했다. 우리카드는 소비자성 부문 순위 하락으로 하위권에 자리했다. 외환카드와 통합한 하나카드는 전 부문에서 순위가 낮아 골짜기 8위가 됐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롯데카드, 18개 워터파크 할인 롯데카드가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전국 주요 워터파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휴천 오션월드를 비롯해 대명아쿠아월드 5개점(밀포노, 단양, 경주, 송비치, 변산)과 거제 오션베이, 김해 롯데워터파크, 일산 워터파크 등 18개 워터파크를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자카드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 강행 목의 수수료를 10월부터 인상한다”고 국내 카드사에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4일 9개 카드사 공동명의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번 통고는 그에 대한 답신이다. 다만 비자카드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를 인상은 내년 시행으로 늦추겠다”고 말했다.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1 MILLION EDITION

더 럭셔리하고, 안전해진 2017년형 싼타페의 진화



▲ 2017년형 싼타페 원밀리언 에디션

R2.0 모델 2800만~3700만원

현대차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싼타페의 내수 누적 판매 100만대 돌파를 앞두고 ‘2017년 싼타페’에 1 Million(원밀리언) 에디션을 선보였다. 외관은 반광크롬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와 반광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또한 1 Million 에디션만

의 도어 스팟 램프, 전용 엠블럼, 듀얼 트윈립 머플러 등을 적용했다. 내부는 버건디 컬러의 가죽 시트와 가죽 스티어링 휠, 스퀘어 재질의 내장재를 적용해 디테일과 함께 실내 고급감을 향상시켰다.

편의 및 안전 사양도 강화했다. 충돌이 예상되면 차량을 제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

B), 차간 거리를 자동 조절하고 자동 정지·재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반대편 차량을 인식해 상황등을 하향등으로 자동 전환해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스마트 하이빔(HBA),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차량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를 해주는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LDWS) 등을 적용했다.

한편 현대차는 ‘2017년형 싼타페’ 전 트림에 싼타페 전용 에어 소프트너(전용 차량용 향수), 주차 시 운전석 도어만 잠금이 해제돼 다른 곳으로 무단 침입하는 범죄 시도를 방지하는 ‘세이프티 언락(Safety Unlock)’ 기능을 기본 적용했다. ‘2017년형 싼타페 R2.0’ 모델의 판매 가격은 2800만~3700만원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소프트웨어 역량 부족” 삼성의 반성

사내방송으로 경쟁력 필요성 강조

“조직문화 개선해야, 소프트웨어 경쟁력 높아진다.”

삼성 사내방송 SBC는 5일 자사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조명하는 20분짜리 특별기획 프로그램 ‘삼성 소프트웨어 경쟁력 백서 2부, 우리의 민낯’을 방영했다. 이날 방송에서 SBC는 “설계가 잘된 소프트웨어는 뭘가를 새롭게 바꾸거나 확장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는 아키텍처 역량 부족을 진단하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평적 조직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이 가진 소프트웨어 리더로서의 규모에 비해서 아키텍처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BC는 지금이 올라가면서 관리업무에만 매달리는 조직의 비효율성도 비판했다. 수평적, 개방적 조직 문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SBC는 “개방적 소스코드를 서로 살펴보고 잘못된 걸 바로 지적해야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선할 수 있으며, 그것이 수평적인 상호평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 올라가면 실무적 소프트웨어를 제쳐두고 관리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조직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SBC는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삼성소프트웨어 경쟁력 백서, 1부 소프트웨어의 불편한 진실’ 편을 내보낸 바 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들 내 소프트웨어 인력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채워졌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소프트웨어 경쟁력 백서를 통해 1부에서 문제점을 알렸다면, 2부는 개선방향을 담았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금호타이어 2개 제품 2016년 美 IDEA 본상

스매셔·실란트 타이어 기술력 인정



금호타이어는 2016년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운송기기 부문에서 2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독일 레드닷·독일 IP·미국 IDEA)를 모두 석권하며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파워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인 협회(IDSA)와 비즈니스 워크지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이다. 금호타이어가 수상한 2개 제품은 혁신적 기술력을 담은 미래형 콘셉트 타이어인 ‘스매셔(Smasher)’와 현재 시장에서 판매 중인 자그합 타이어 ‘실란트 타이어(Sealant Tire·사진)’이다.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디자인 파워를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콘셉트 타이어 ‘스매셔’는 극한의 도로환경에 특화되어 주행이 불가능한 환경에서의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다. 흡착판, 글라인트 형태의 타이어 트레드(접지면) 디자인이 특징이다. 트레드 블록 내부에 삽입된 고강성 글라인트 구조가 타이어를 손상시킬 수 있는 도로 위의 요철을 분쇄해 어떠한 도로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원성열 기자

전병헌 회장 “한국 e스포츠, 글로벌 주도권 확보”

(한국e스포츠협회)

건전한 문화 정착 등 4대 비전 제시



“한국e스포츠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전병헌(사진) 한국e스포츠협회장은

5일 서울 용산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농구와 축구 등에 투입되던 전통의 스포츠 자본이 e스포츠로 투입되는 미국과 유럽,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투자 속에 산업화가 속도

로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국내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이를 위해 ‘건전 e스포츠 문화 정착’과 ‘글로벌 종목 저변확대’, ‘e스포츠 플랫폼 확장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주도권 확보’ 등을 골자로 한 4대 비전을 제시했다.

협회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인e스포츠 PC클럽’ 지정 사업을 시행하고, e스포츠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대학교가 도입한 e스포츠 선수 입학 전형을 다른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라이엇게임즈와 블리자드, 넥슨 등 국

내외 게임사들과 협력해 다양한 종목의 국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국내 리그 중계와 개인방송 수익 확대, 선수·팀 권리를 활용한 국내외 사업을 통해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다른 국제대회 조직과의 연계 확대에 중추국으로서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전 회장은 “e스포츠나 게임업계는 향후 2~3년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회는 주도적이고 기민하게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헤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